

故로 金氏가 그 無罪이 免官함을 憤하야
高等裁判所에 와서 裁判을 請하엿더니 指
令內에 國家의 維持는 名수이 有함이라
府貶이 設或 爽實하디라 도 郡守가 만일 裁
判을 請하면 觀察使가 一도 彈壓하
리오 原告도 他日에 方伯을 作할지니 國家
를 爲하야 名分을 앗기어 다시 請願을 말나
하엿다더라

○(趙氏損財)向日에 叅政으로 免本官하
엿다가 現今中樞院一等議官을 任하 趙秉
式氏가 年前에 咸鏡監司在任時에 防毅事
件으로 日本商民의 賠償金十一萬元條
는 甲午年에 六萬元은 當年徵給하고 五萬
元은 排年하야 國庫金으로 支撥하느니 富
年徵給條六萬元內에 一萬元은 趙氏가 自
辦하고 五萬元은 不足하故로 趙民와 外衙
門이 聯署하야 商民의 致益의 證約書
를 成給하고 得債充償하엿더니 上年의 閱
致益이 가該證約書를 帖連하야 外部의 請
願하 趙伊時의 趙秉式氏가 議政署理를 任
하故로 議政府의 經議하고 該債金을 具
利子하야 國庫金으로 報償하기로 決定되
엿다가 其時의 政府大臣一人이 異議가 有
하故로 于今 各區劃이 無히더니 今聞하
즉 該債額은 趙氏가 自當徵給하미 可하다
하야 政府의 議論이 更發하디라
○(淸南一治)順川郡守金在鵬氏가 赴任
以後에 治蹟이 優異하고 該郡民人等이 該

觀察府에 願留狀을 呈하엿느니 大槩에 臨
民以 惠하니 闔境羣生이 各自安業이라 그
優異하 實蹟六條를 舉하오니 補救齋弊享
祀助費는 尊聖이 一也 오 興學習講捐俸賞
는 愛士가 二也 오 火民三十餘家를 以二十
資金으로 優惠하니 恤窮이 三也 오 初夏旱
災에 三次祈雨는 自費彈誠하니 憂民이 四
오 山訟은 親審公決하고 財訟은 必欲使無
也하니 廉明이 五也 오 團束吏鄉하야 莫敢
售奸하니 息猾이 六也 라 賢哉我后를 恐或
失之則 赤子가 慈母를 失함과 갓갓기 一
郡이 立議하고 齊聲仰訴하오니 照亮하시
고 舉實 啓聞하와 限十年仍任함을 伏乞
하느니 이다 하엿더니 該觀察使指令內開에
此 倅治蹟은 不待所訴而已 所稔知也 라
啓聞하 近例所無하니 誠甚可悶이라 하엿
기로 該郡人民等이 다시 論議하고 上京하
야 內部에 願留를 請하디라
○(黃老幻術)法部大臣申箕善氏가 痼症
으로 數三日 委席하야 部務가 積滯하엿다
더니 今에 聞하 前縣監黃仁氏가 崔時
亨事에 上疏한 事件으로 審判하 罪가 詐
不以 實條答一百流三年에 處하엿느니 黃
氏가 家貧하야 答贖을 徵納할 슈업스니 答
罰로 當하기를 自願하거늘 申大臣의 意本
에 黃氏가 曾經朝官인 즉 答罰을 施하느
것이 不可하고 또 家貧하야 納贖이 難함으
로 奏本코져 한즉 一部中이 다 可치안타하

야 不得已 答罰로 執行하디라 하엿더니 黃氏
가 忽然變辭하야 三日內에 納贖하기로 請
限하엿다니 마지라하든 答는 그다지 怯하
며 淸은 贖錢은 이디서 生겨는 지심이 訝然
하디라
○(積屎如山)世人이 大便不通이면 其病
勢가 危急한 줄 알거늘 官令으로 厠을 杜하
고 穢物을 區處가 업스면 其惡臭는 無關하
다 하느니 지이 처럼 衛生하는 令飭은 淸알슈
업다더라

外國通信

○(日本の殖民)日本廣島海外渡航株式
會社의 契約하 移民二百四十餘名은 七月
二十四日正午에 橫濱出帆하 四番館汽船
갑덕號에 載하야 布哇로 渡航하얏다더라
○(英相의 著述殖利)前英相 글리스돈氏
의 著述은 英米間에 大段히 衆望의 洽然함
인디 每番發行에 上至幾百磅으로 下至七
十磅까지 領收하되 平均하면 每番二百磅
式은 無慮히 收入하얏다더라
○(米國教會의 請論)米國長老教會에서
決議하야 大統領의 請하거늘 日曜日에
戰爭함이 大不可하니 萬一 米國海軍提督
이 西班牙海軍大將을 日曜日에 相遇하거
든 戰爭을 始치勿하고 서로 書通하야 一日
을 停止하게 하야 달나 하얏다더라